

법 어

싱그러운 풀내음으로 가득한 초록빛 설악에 안겨 있는 이곳 만해마을에서 오늘은 또 다른 향기가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암울한 시절에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고, 평화는 인류의 행복’이라는 뜻으로 평생을 일관하며, 자주독립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문학 활동에 일생을 바친 만해 한용운의 자취를 따라 오늘의 영웅들이 모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해스님은 ‘님’을 찾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님은 부처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며, 잃어버린 조국인 동시에 빼앗긴 자유였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님을 찾는 일에서 만해스님은 타협하거나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문과 투옥 그리고 궁핍한 삶과 병고에 시달리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별하여 이 자리에 없는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의 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조국의 독립을 지켜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와 평등의 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과 압제도 결국 스스로의 탓에 걸려 패망하리라는 그의 예상은 빛나가지 않았습니 다.

제국주의가 종식되고 이념의 갈등 시대를 지난 지금 세계는 종교와 문화, 빈부와 세대의 갈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사회는 또 다른 ‘님’을 찾아 일생을 헌신하는 새로운 만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백여 년 전 만해스님이 주창했던 사상이 오늘날 전 세계에 새로운 공명(共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님’을 찾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또 다른 영웅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늘로 17회를 맞는 만해대상 수상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수상하시는 아홉분의 국적과 활동분야는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님’을 찾아 일생을 헌신해온 이 시대의 만해이며 새로운 영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갖 고초를 감내하는가 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산시켜온 공적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수상자들의 활동은 일생을 자비를 바탕으로 한 사랑의 철학과 생명사상, 그리고 평화사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만해스님의 실천과 일맥상통하며, 올해 만해축전의 주제인 ‘선린(善隣)과 상조(相助)’와도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위기를 어떤 위대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단연코 생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과 쉽 없는 작은 실천이 모여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물줄기를 만들어가는 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이 자리가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인류사적 전환에 작은 기여를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멀리서, 또 가까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2013)년 8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